

활동지로 배우는 실학

실학박물관 청소년용 활동지



학교:

학년:

이름:

실학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학박물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마재마을에 있어요.
실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연구하고, 전시·교육하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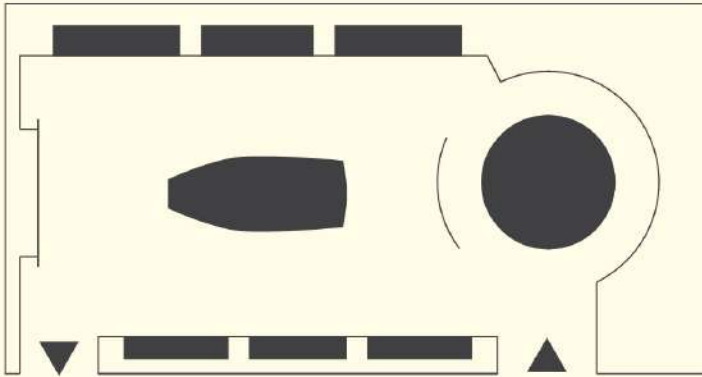
실학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실학實學’이란 ‘허학虛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조선후기(17세기~19세기 전반)의 개혁적·실천적
학풍을 가리킵니다. 고전을 재해석하여 현재적 실천방안을
모색했으며, 제도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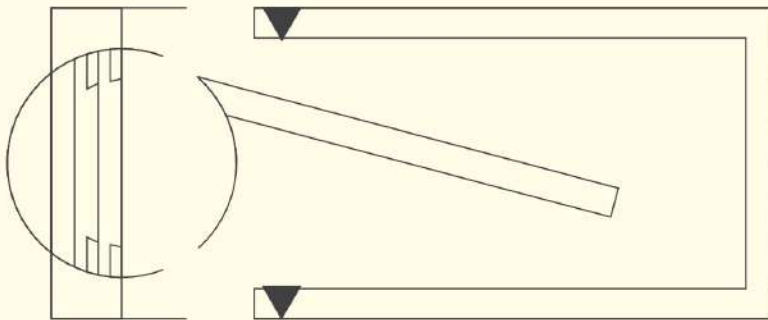


전시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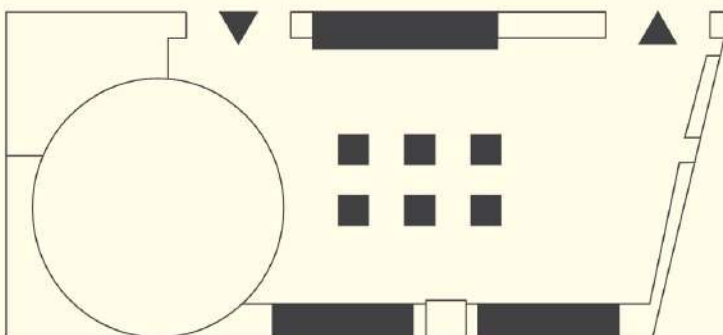
실학박물관 전시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1전시실
실학의 형성



제2전시실
실학의 전개



제3전시실
실학과 과학

박물관 전시유물 옆엔 유물을 설명하는 이름표가 있어요.

보통 긴 글은 '설명문-라벨(label)'이라고 부르며,
각각의 유물을 설명한 작은 표는 '네임택'이라고 부릅니다.

제1전시실

실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까요?

실학의 형성

조선을 세운 지 200년이 지나자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6세기 유럽은 해상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17세기 중국 대륙은 명이 청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조선은 양란(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충격을 수습하고 국가 제도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후기에 나타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두루 모아 편집하다

1. 세계적으로 왕래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세 차례나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 이수광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아 문화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동남아와 유럽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을 소개했어요. 책 이름이 무엇일까요?



스

스

※이 책은 조선후기에 나온 여러 백과사전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백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나라의 재정을 넉넉하게

조세제도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해마다 지역 특산물인 '공물'을 거두는 제도가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 ()법을 도입한 결과 백성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나라의 재정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이 김육 선생님이 개혁한 제도를

법이라고 합니다.

3. 이 제도는 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생각해보기>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서민이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조선후기 서민이 성장하며 여러 문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한글소설 읽기였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의 독서가 주목됩니다. 소설의 수요가 증가하자 당시 관에서 필요로 한 책을 인쇄하던 업자들이 한글소설을 판각으로 새겨 대량으로 책을 공급하였습니다. 한글소설은 사회 비판의식을 담고 있어 백성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글소설 조용전

4. 위와 같이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발간한 책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정기적인 시장인 장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에 들어 전국 1천여 곳에 5일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상인으로 보부상과 객주가 출현하였습니다. 점포를 갖추어 고정된 장소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정주상인은 서울과 개성의 시전에만 있었으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평양, 수원, 통영 등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상평통보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동전입니다. 상평은 항상



을 유지해야한다는 '상시평준'의 준말입니다.

6. 위 설명에서 붓짐장수, 등짐장수를 포괄하는 단어로, 정주상인과 반대되는 행상에 해당하는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는?



7. 다음 사진 속 동전의 가운데 있는 구멍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기>



국가제도 개혁론을 내놓다

조선시대 학문의 주류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만 받들며 다른 학문은 배척하고, 의리명분과 도덕만 강조하여 제도와 민생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제도를 개혁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자들이 등장했어요.

8. 다음 실학자들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각 토지개혁론을 내놓았습니다. 주장한 사람과 제도를 알맞게 완성해 보세요.

주장한 제도 내용	주장한 사람	주장한 제도
자영농 육성을 위해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여 지역에 따라 고르게 배분하자.		
소농 보호를 위해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여 매매를 금지하자.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금하자.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고 수확한 곡물은 마을 사람들이 일한 날 수에 따라 분배하자.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① 반계 유형원



② 성호 이익



③ 연암 박지원



④ 다산 정약용

Ⓐ 여전제

Ⓑ 공전제

Ⓒ 한전제

Ⓓ 균전제

외부 세계를 살피고, 문물을 받아들이다

연행사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북경)을 다녀온 사신을 말합니다.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청나라가 연경으로 수도를 옮긴 1644년부터 1876년까지 61회의 연행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와의 외교활동을 통해 청나라를 비롯한 외부세계의 지식과 문물을 도입하였습니다.

9. 다음은 청나라를 다녀와 쓴 연행록입니다. 연행록의 저자와 저서를 맞게 이어보세요.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노가재연행록

열하일기

을병연행록



제2전시실

대표적인 실학자를 알아보까요?

실학의 전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여러 실학자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과 그들이 주장했던 이론을 눈 여겨 보고자 합니다.

성호 이익(1681~1763)은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였는데, 경전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산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들을 '성호학파'라고 합니다. 성호는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천주교에 관해서는 유교를 보완하는 정도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여러 문물과 지식을 정리한 『성호사설』이 유명합니다.

10.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성호사설

성호 이익은 '좋은 스승을 만나려거든



를 즐겨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인 자신의 학문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을 꾸짖었으며,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자득(自得)을 강조하였습니다.

담헌 홍대용(1731~1783)은 혼천의를 만들었으며, 집에 《농수각》이라는 천문관측소를 가지고 있던 천문학자였습니다. 연행(燕行)을 다녀와 한문본 『담헌연기』와 국문본 『을병연행록』을 남긴 문인이었으며, 가야금과 양금(洋琴)을 연주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의산문답』을 지어 당대의 인간중심주의와 중국 중심주의 등의 생각을 비판 하였습니다.

11. 담헌 홍대용의 저서 『의산문답』에는 두 인물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인물인 두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산문답

자, 실

연암 박지원(1737~1805)은 1780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절단에 포함되어 중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이 저서에서 청나라 통치 사정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소개하며 고루한 생각을 각성시켰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지배층인 양반을 풍자한 한문소설 『호질』과 『허생전』이 들어있어요.

12.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특히 나라가 발전하려면 신속한 물자의 유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 로고에도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실학박물관이 위치한 마재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조 임금 때 관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훗날 강진에서의 유배생활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이들과 함께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경세유표』와, 지방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한 『목민심서』가 유명합니다.

13. 다산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만들 때 ()()()를 만들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도르래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것으로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였다고 해요.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추사 김정희(1786~1856)는 그림과 글씨로 유명합니다. 여러 서체들을 본받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시켰어요. 또한 북한산에 서 있는 비석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탐구한 성과였지요.

14. 추사 김정희는 자신이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줍니다. 세한도에 그려진 나무는 무엇일까요?

- ① 대나무 ② 소나무 ③ 참나무 ④ 은행나무



선생님, 여성실학자도 있었나요?

물론이지요.

다음의 두 분은 조선시대 여성실학자입니다.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태교신기(胎敎新記)』는 태교 지침서로 훗날 아들인 유희가 어머니의 글을 다시 열 개의 장으로 나누어 주를 달고 우리말로 해석하여 펴낸 책입니다. 1932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의 여자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번역 출간 되었으며 최근에도 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교신기』의 내용은 크게 10장으로 태교의 이치, 효능, 필요성, 방법, 중요성, 당위성, 경계, 비유, 옛 선조들의 사례,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로 “師敎十年이 未若母十月之育이라. - 스승의 십 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임신하여 열 달 기르는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15. 1800년에 지은 『태교신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 ■ 당 이 씨 (1739~1821)



조금 더 공부해볼까요?

※조선후기 대표적인 여성지식인 빙허각 이씨(1759~1824)는 여성실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일상과 사색의 기록인 『규합총서』를 썼습니다. 규합이란 여성이 거쳐하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음식 조리, 옷 만드는 법, 발을 갈고 가꾸는 법, 태교·출산과 육아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실학자 집안입니다. 외숙모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를, 외사촌 유희는 『언문지』를, 시아버지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시동생은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지었습니다.

※ 정약용의 가족사랑

16.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유배) 생활을 할 때, 두 아들에게 편지로 많은 당부를 했어요. 자신이 귀양가 있는 동안 두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했던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독서를 열심히 해라, 부지런하고 검소해라 등의 말씀이었어요. 부인 홍씨가 보내온 빛바랜 붉은 치마를 잘라 여기에 위의 내용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를 '() () ()'이라고 합니다.



17. 내가 만약 귀양(유배)중인 정약용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나요?

- ① _____
- ② _____

18.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할 때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가는 딸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그림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매 병

제3전시실

조선후기 과학과 지리를 알아보아요!

실학과 과학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천문과 지리는 승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며 실측實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의 전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개통헌의



아스트로라베

‘아스트로라베’ 혹은 ‘혼개통헌의’라고 불리는 이 천문기기는 하늘에 관한 정보를 집적해 놓은 기구로, 이슬람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시간을 관측하는 데 이용한 기구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용했지요. 아스트로라베는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유금(1741~1788)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었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 보물(2032호)로 지정되었답니다.

19.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생활의 편익을 위해 무엇을 만들었을 것 같나요? <생각해보기>

신곤여만국전도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곤여만국전도>를 1708년 조선 왕실에서 다시 그렸어요. 그동안 많은 조선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며 중심에 중국이 위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지도를 실학박물관에서 2011년 원래 크기로 다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20. 당시 곤여만국전도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생각해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재마을 그림지도



제작 실학박물관 학예팀 문의 정춘옥 (031-579-6026)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본 활동지의 저작권은 실학박물관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